



고창군전통시장 내 직거래장터와 공동판매장이 마련돼 더욱 풍성한 먹거리와 제품들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선다.

# 고창전통시장 활기 찾는다

### 직거래장터 · 공동판매장 마련 관광객들 가깝게 다가서

고창군전통시장 내에 직거래장터와 공동판매장이 마련돼 더욱 풍성한 먹거리와 제품들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선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3일 고창전통시장 내에 공동판매장 공사를 마치고 직거래장터와 더불어 공동판매장 개점 행사를 시장상인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고창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시장'을 비전으로 이번 공동판매장 외에도 시장부여 관광상품 개발, 특화상품 개발 및 협동조합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진열 및 친절 교육 등 총 11가지 주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해 그

동안 고창전통시장 주변 점포들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차별성이 있는 판매장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중복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청보리빵, 복분자장어파이 등 특화상품을 개발해 공동판매장만의 특성을 부여했다.

공동판매장에서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을 판매하게 되며 지역 내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의 제품도 판매하게 된다.

공동판매장은 협동조합을 통해 상시 운영되며 직거래장터는 고창전통시장(5일장)의 장날인 3일 8일마다 운영된다.

고창전통시장 최만영 상인회장은 "고창전통시장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과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을 찾아 고창의 맛과 멋을 즐기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 등을 구입하며 따뜻한 인심과 기억들을 갖고 돌아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명품 시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우정 군수장은 "공동판매장 조성을 통해 고창전통시장이 더욱 알차고 멋스러워졌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내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창전통시장과 고창군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모양성제보존회 정기총회 개최

### 모양성축제 준비 논의

사)고창모양성보존회(회장 진남표)가 23일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16년 고창모양성제' 시작을 알리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모양성제 결산안과 '제43회 고창모양성제' 개최 계획 및 예산승인 등을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진남표 회장은 "전북지역 14개 시군 대표축제 중 고창모양성제 예산이 적은 편에 속하는 축제로 매년 개최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및 도비 1억5천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중

에 하나로 선정된 것에 의미가 크고 모양성제가 전국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내실 있는 축제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제43회 고창모양성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확정하고 모양성제의 대표프로그램인 담성놀이와 강강술래를 모양성제하면 떠오를 수 있게 강화방안을 주문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고창모양성제 프로그램 공모를 제안했다.

임원들은 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 제43회 고창모양성제가 유망축제에서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 성수당마을 마을기업 선정

임실군 성수면 당당마을의 당당솔로마 올영농조합법인(대표 김인호)이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에 선정됐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당당솔로마 올영농조합법인은 두부 생산기업으로 마을전체 주민이 재배한 콩을 원재료로 두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통과 판매에도 직접 참여하여 농가별 판매수령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수익배분 실현과 농가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마을기업 선정으로 당당솔로마올영농조합법인은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두부품목의 다변화를 꾀하고 치즈와 두부를 혼합한 특화상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룼, 경운기 야광반사판 부착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북쪽파출소(소장 변용상)에서는 23일 관내 경운기 운전자를 상대로 농번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경운기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했다.

이날 야간 경운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경운기 운전자는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야광반사판을 부착하고 야간운전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변용상 소장은 "지역 특성상 바쁜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의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창경찰은 경운기 등 농기계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고 교통안전홍보활동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남원시, 농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 사업비 주관 220억 확보

남원시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남원시 축산업 질 향상을 위해 2016년도 농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20억(국비 13, 용자 164, 자담 43)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

조건 등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이 우수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12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주요사업으로 한우 4농가, 양돈 1농가, 양계 7농가가 선정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안내, 세부사업계획 추진,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추진기간 중 미착공 등 불

가피한 사유로 대상 농가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미, 한·EU,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미관개선, 냄새 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노후축사시설 현대화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직원·유관기관 대상 복분자 팔아주기 운동

남원시 주요 특작작목종 하나인 복분자가 올해 본격 생산 출하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채리, 오디, 배리 등 대체 생산 작목이 많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남원시에서는 직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복분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남원에서 생산한 복분자는 지리산 고랭지인 인월, 아영면과 도동동 등에서 147농가가 30ha에서 재배하여 연간 150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출하된 복분자는 지리산농협 및 남원농협에서 선별하여 복분자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하나로 마트 및 남원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 중에 있다.

남원시는 이번 복분자 팔아주기 운동에 시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이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은 임실(과수 융복합화 고부가6차산업화를 위한 설명회를 23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복숭아, 사과, 배 재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임실군, 과수 융복합 고부가6차산업화 설명회

### 재배농가 100여명 대상 사업개요·추진방향 등

임실군은 임실(과수 융복합화 고부가6차산업화를 위한 설명회를 23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복숭아, 사과, 배 재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임실(과수 융복합화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추진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농가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단 운영 및 자립화 방

안, 과수 가공품 개발, 홍보마케팅, 과수 가공시설 구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생산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심민 군수는 "이 사업은 임실 과수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농촌 부흥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향토자원인 과수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요 확대 등 임실군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라북도가 공모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금년 1월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 사업은 매년 수입과일의 소비 증가로 국산과일의 경쟁력과 가격하락으로 발생하는 관내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일 중 30%에 달하는 비선호 과일을 별도로 선별, 식품원료로 개발하여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지역특산물 사용한 푸드트럭 첫 출발

남원시(시장 이회주)는 이달 20일부터 규제개혁의 상징인 푸드트럭을 춘향골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서 첫 번째로 운영을 하게 된 푸드트럭은 지리산 특산물 사과모양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로 선정된 정모씨(남원거주)는 지역특산물(사과, 포도)을 이용한 음료와 커피, 제과 등 다양한 메뉴로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다.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있는 영업장 주변은 가족·친구들과 운동이나 산책을 하며 편리하게 구매 할 수 있어 각광 받고 있다.

춘향골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에는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체육시설로 해마다 각종 체육행사가 열리는 곳이지만 음료와 먹거리를 파는 곳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공고를 3차례 냈으나 끝내 불발에 그쳤지만, 남원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돕기 위해 올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에 최선을 다한 결과 공개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운영자의 발빠른 준비로 푸드트럭 1호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룰 요양시설 인권침해 점검

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는 23일부터 관내 요양시설 4개소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했다.

이런 점검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 시설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실군청과 합동으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 심야시간대 CCTV 녹화상태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였다.

이후신 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